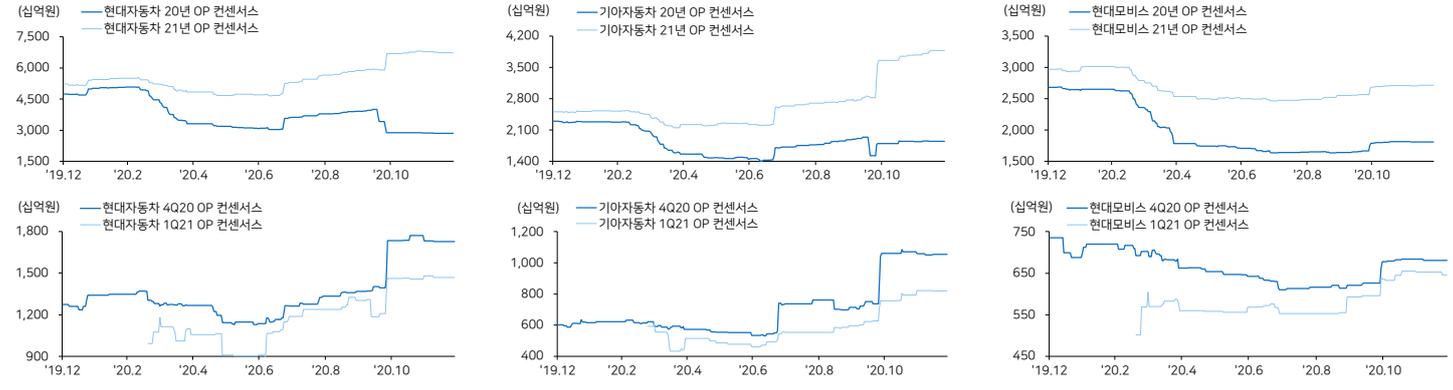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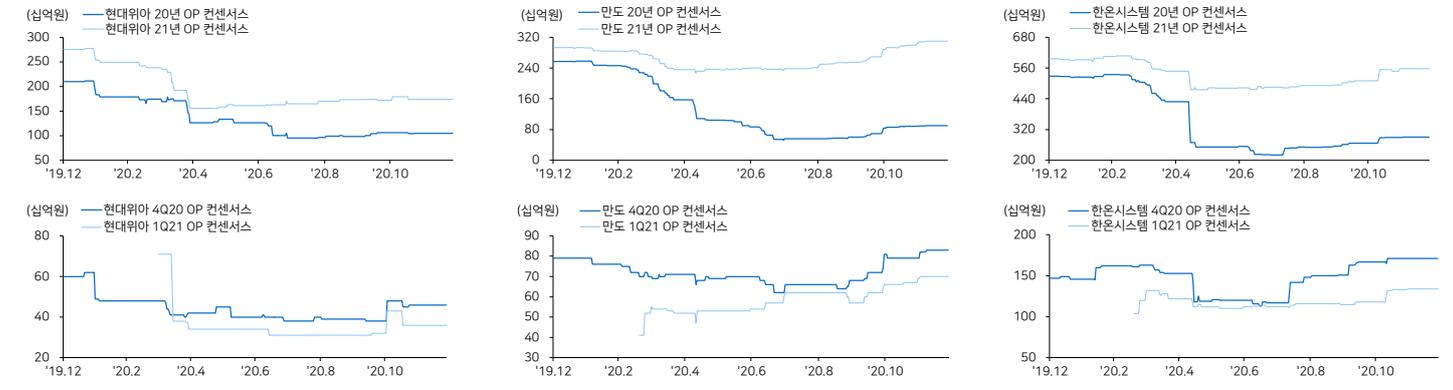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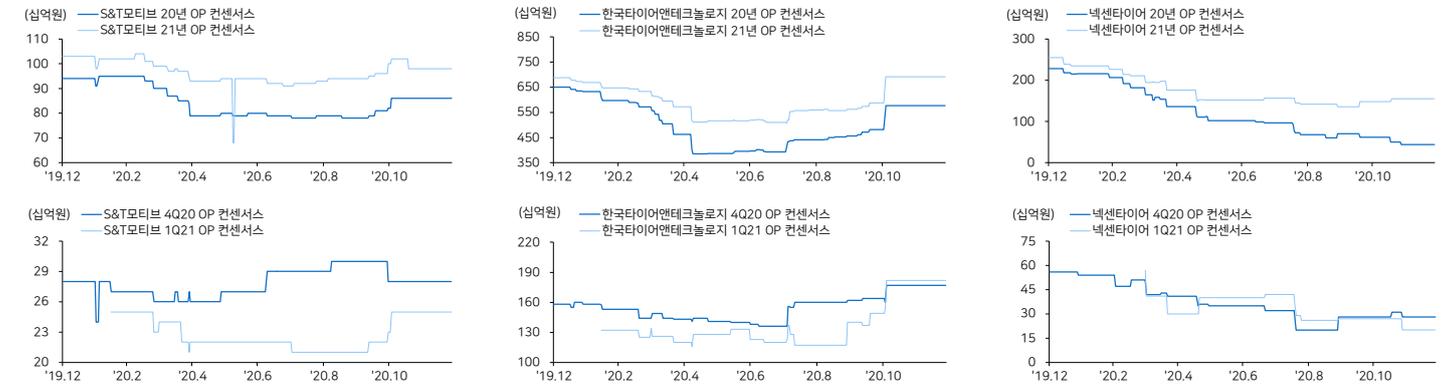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가열되는 中 미래차 시장 경쟁---현대차, 전동화로 패권 도전 (디지털타임스)

글로벌 완성차들이 중국 미래차 시장 공략을 위해 합작사 설립에 나서는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현대차도 중국 지역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델을 선보이고 판매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올해 중국 제2차국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목표. <https://bit.ly/2LIQLM8>

현대차, 코로나 사태에도 인도서 역대 12월 최대 판매 기록 (조선비즈)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서 역대 12월 기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움. 인도 시장의 자동차 판매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3~4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가 5월부터 방역 관련 통제가 풀리면서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라선 것.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1/202101010125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전 세계 현대·기아차 AS 플류 혁신---현대모비스, 실시간 인공지능 부품 공급 체계 구축 (동아닷컴)

현대모비스가 효율적인 AS부품 공급을 위해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 현대기아차는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현대·기아자동차 AS 부품 공급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축한 데이터 기반 통합정보시스템인 '맵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https://bit.ly/3pFrAmg>

테슬라, 작년 자동차 출하 예상 초과---목표치 50만대 거의 달성 (글로벌이코노믹)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작년 목표치를 거의 충족.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음.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작년 자동차 출하대수가 49만9550대를 기록했다고 발표. <https://bit.ly/38THK52>

기아차, 새해 첫 신차 5종 선보인다...어떤 모델? (지피코리아)

기아자동차가 새해 북미시장에 5종의 신차를 선보일 예정.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기아차가 북미시장을 위한 5가지 신차를 공개할 예정이며 신차들은 신규 모델 또는 상당부분 재설계된 모델로 추정된다 전함. <https://bit.ly/3nePQtY>

현대차 아이오닉5 등 출격---2021년은 전기차 대전 (뉴스토마토)

새해 국내 차 시장은 전기차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차세대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이고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수입차 브랜드도 출격 준비를 하고 있음. <https://bit.ly/2KVf8QE>

주린이, 삼성SDI로 물리나---현대차 배터리 공급후보 낙점 (매일경제)

삼성SDI가 SK이노베이션과 함께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대한 3차 배터리 공급사 최종 후보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짐. 총공급 규모는 약 25조원에 달함. 계약이 성사되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미래 EV 사업에서 협력하는 첫 사례. <https://bit.ly/3rRzxs>

자율운전 시 중국 디펜스 7600억원 자금 조달 (뉴시스)

자율운전 인공지능(AI) 칩을 생산하는 중국 디펜스 지지펀드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7억 달러(약 7616억원)의 자금을 조달. 디펜스는 AI 칩을 중국 자동차 메이커의 일부 차종에 탑재할 시작. <https://bit.ly/2X63GF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